

후기구조주의 및 해체주의적 관점으로 바라본 영화 <라라랜드>.

본 글에서는 영화 <라라랜드>를 ‘해체주의’적 시각에서 바라보고자 한다. 라라랜드에서는 크게 세 가지 후기구조주의 및 해체주의적 입장이 드러난다. 첫째로는 ‘언어에 대한 해체 (logocentric¹⁾)’이며, 두 번째로는 ‘일과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기존 사회 내 지배적인 관념에 대한 해체 시도, 그리고 마지막으로 ‘작가의 독재적 해석’에 대한 해체이다.

첫째, ‘언어’에 대한 해체이다. 영화 <라라랜드>는 세바스찬과 미아라는 두 남녀 주인공을 중심으로 영화가 전개된다. 먼저 나는 한 가지 질문을 해보고 싶다. 만약 당신이 감독이라면, 사랑하는 두 남녀의 마음을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사랑하는 두 남녀의 틀어진 마음과 5년 만에 다시 만나게 된 사랑했던 두 남녀의 마음은? 오랜 시간 사랑했던 두 사람이 마주했을 때의 모습은 어떻게 표현해낼 수 있을까? 어떤 말로 표현해야,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마음을 깊이 표현할 수 있을까?

<라라랜드>에서는 감독이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단순히 ‘말과 언어’를 통해, 표현하지 않는다. 감독과 작가의 언어적 수사로, 사랑에 빠진 두 사람의 마음을 표현하지 않는 것이다. 언어라는 표현수단을 초월하여, ‘노래와 춤, 우주적 배경 등’을 활용한다. 한 마디의 언어를 더하지 않더라도, 별빛이 가득한 우주 속에서 ‘춤’을 통해 사랑에 빠진 두 남녀의 감정을 섬세하게 표현하고 있다. 단순히 ‘당신을 사랑한다’는 말만으로는 형언하기 어려운 사랑에 빠진 마음을, 어떤 언어적 표현도 없이 그저 사랑스런 음악과, 춤을 통한 몸짓과, 우주적 배경을 통하여 표현하고 있다. 텍스트적 의미를 전달하는 ‘언어’라는 전달수단을 해체하고, 춤과 노래, 몽환적 배경을 통해 문맥에 따른 이해를 바탕으로 관객들의 시적 상상력을 극대화시켜 장면을 묘사하고 하고 있다. 사랑에 빠진 오묘한 마음, 그 형언하기 힘들 다채로운 감정의 기의를, ‘언어’라는 기표로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²⁾

1) 로고스중심주의(logocentrism)는 로고스(logos)라는 개념을 중심으로 서구 형이상학의 전통이 전개되어왔음을, 즉 로고스가 서구의 사회, 문화, 사상 등 모든 영역을 지배해왔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크 데리다(Jacques Derrida)가 처음으로 사용한 용어이다. 이때 로고스는 단지 언어, 논리뿐 아니라 이성, 질서, 합리성 등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불변의 본질적, 절대적 권위를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데리다는 로고스 중심적인 사고방식을 비판하고 이른바 해체(deconstruction)를 위해 반로고스중심주의적 사고를 지향한다. -[네이버 지식백과] 로고스중심주의 [Logocentrism] (문학비평용어사전, 2006. 1. 30., 국학자료원)

2) -1 ““You’re not the type for me and there’s not a spark inside. What a waste of a lovely night”
당신은 내 타입이 아니야. 가슴이 뛰지도 않고, 이 아름다운 밤이 아깝네. -OST ‘A Lovely Night’ 말로는 퍽퍽거리도, 서로에 대한 관심이 함께 춤으로 드러난다. 말 너머의 두 사람의 마음과 진심을, 기존의 말이라는 형태를 초월해서 춤으로 전하는.
-2 미아와 세바스찬. 서로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하는 장면
설레고 신나는 마음을 춤으로 표현하는. 천문대 별 속으로 날아오르는 두 사람의 마음. 서로를 알아봐주는 그런 마음. 사랑한다는 말로는 부족한 그 마음. 별빛 가득한 우주 속에서 춤추며 노니는 그런 모습으로 그려냈다. (데이트 할 때도 춤과 음악으로 감정을 표현)
-3 미아와 세바스찬. 멀어진 마음을 ‘다 타버린 오븐 속 음식’ 과 자욱한 연기. 침묵 속에 도는 엘피판으로 표현.
-4 다른 남자와 세바스찬의 재즈바 썬스에 온 그녀.
5년 만에 보게 된 미아를 바라보며, 한 곡의 피아노 연주를 한다. 한 곡의 피아노 연주 속에 자신이 그녀와 꿈꾸었던 앞으로의 미래. 사랑하는 그녀 앞에서의 수줍음, 체면, 괜한 텅김은 모두 잊고 그녀와 함께 하는 행복한 시간을 그려낸다. 그녀의 연극을 보러가며 응원하고, 그녀와 함께하는 장미빛 나날을 그리는 알록달록 빛깔의 아름다운 미래. 그녀의 꿈을 응원하는 한 남자의 마음이 오롯이 그 찰나의 연주 속에 담긴다. 반짝이는 빛 아래 물 위에서 춤추는 행복해 보이는 두 사람.
-5 서로 말하지 않아도 이야기를 나누지 않아도 ‘한 번의 눈길, 미소’로 깊은 이야기를 나누는 두 사람.
-6 말을 통한 설득이 아닌, 경험을 통한 설득.
재즈가 싫다는 미아를. 말 만으로가 아닌, 재즈공연장에 데리고 가서 직접 느끼게 해주는 것과 동시에, 말로 설명. “재즈는 그냥 음악이 아니에요. 얼마나 치열한지 직접 봐야해요/저 색소폰 연주자를 바라. 방금 곡을 가로채겠다. 서로 충돌했다가 다시 조화를 이루고, 매번 새로워요. 매일 밤이 초연이에요.”

둘째, 오늘날의 사회 내에 존재하는, 기존의 주류관념에 대한 해체시도이다. 특히 ‘일과 남녀간의 사랑’에 대한 부분에서 이러한 해체의 시도가 두드러지고 있다. 달리 말하면 ‘현대에 만연한 직업관과 결혼관’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도 있겠다.

먼저 일에 대한 기존관념의 탈중심적(decenter)접근이다. 자본주의 세상 속에서는 ‘개인이 노동으로부터 소외’되기 마련이다. 노동의 과정 자체가 자신이 원하는 일이라기보다 자본가의 이윤창출을 위한 노동에 가까우며, 노동의 결과물 역시 자본가에게 돌아가기 때문이다. 대다수의 사람들이 경제적으로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이러한 임금노동자의 삶을 살아간다. 영화 속의 세바스찬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자신이 원하는 재즈가 아닌 ‘타자가 원하는 재즈’를 남의 카페에서 쳐야했고, 자신이 추구하는 정통재즈를 포기하고 대중재즈를 추구하며, 타자의 요구에 맞추어 원치 않는 광고촬영까지 한다. 여주인공 미아 역시, 자신이 원하는 배우가 되기 위해 끊임없이 오디션을 보러 다니며, 타자의 눈에 띄기 위해 파티에 참석하기도 하고, 반복되는 오디션 속에서 끊임없이 ‘타자로부터 평가받고 판단’당한다. 사실 이러한 모습은 자본주의사회를 살아가는 ‘우리네 사람의 일반적인 풍경’과 닮아있다. 이에 영화 <라라랜드>는 당연하게 여겨지는 고정된 관념의 해체를 시도한다.

왜 우리가 남들로부터 판단을 당해야만 하는가? 왜 우리가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오늘이 하루하루를 내가 원치 않는 일들을 하며 시간을 보내야만 하는가? 왜 배우를 하기 위해 누군가로부터 채용이 되어야만 하고, 배우를 준비하는 동안 카페에서 알바를 해야 하는가? 이러한 관념의 도전은 ‘일에 대한 자신의 주체성, 능동성’을 되찾자는 주장으로 이어진다. 대중 인기를 추구하는 것보다는 ‘자신만의 정통 재즈바’를 열겠다는 세바스찬의 생각(그만의 개별성을 다진)과 미아에게 누군가로부터 판단당하고 선택받을 때까지 기다리기보다, 스스로 주체적으로 1인 연극이라도 시도해보라는 도전적 요구는 ‘어느덧 사회 속 보편화된 직업관’에 대한 고정관념을 다원성을 통해 극복하고자 하고 있다. 직업과 관련하여 절대적으로 우리 택하고 따라야만 하는 방식은 없는 것이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어쩔 수 없음, 혹은 수동적 태도’로 흘려보내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지 않고 끊임없이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개척해나가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다. 기존의 질서에 따르기보다 새로이 자신만의 다른 길을 개척해나가고자 하는 것이다.

더불어, 세바스찬이 좋아하는 ‘재즈’라는 음악장르 자체에도 주의를 기울여볼 필요가 있다. 세바스찬은 왜 재즈를 좋아하는가? 재즈는 자신만의 독창적이고 자유로운 연주를 하면서도, 다른 합주자들과 부딪히며 매번 새로운 음악을 만들어내는 음악장르이다. 고정된 음악의 반복된 연주가 아니라, 끊임없이 음악에 대한 새로운 도전과 고정된 음악의 해체가 요구되는 음악인 것이다.

다음으로는 오늘날 사회지배적인 ‘사랑관, 결혼관’에 대한 도전이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물질적 가치가 사람들에게 ‘중요한 삶의 가치’로 자리를 잡고 있다. 돈이 있어야만 제 밥 벌어 먹고 살 수 있는 사회이기 때문이리라. 이러한 관념은 두 남녀 간의 ‘사랑이나 결혼관’에도 영향을 미친다. 모두 다 그런 것은 아닐 테지만,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두 남녀가 결혼을 할 때 경제적 자립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는 상대방의 물질적 조건을 고려하는 경향이 있다. <라라랜드> 속의 미아도 그런 선택의 기로에 놓인다. 하지만 적어도 미아에게는 ‘사회경제적으로 유

망한 이전의 남자친구와 남자친구네 가족'보다는, 경제적으로는 보다 더 가난하면서도 향후 미래는 불확실성으로 가득 찬 한 남자를 선택한다. 그 이유는 자신을 이해해주는 한 사람의 예술가였다거나, 자신만의 주체적인 생각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는 한 사람으로서, 혹은 매력적인 한 남자로서 끌렸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허나 분명한 것은, 사랑의 모습도, 연애의 모습도 다양할 수 있다는 것이다.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경제적 관념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다른 더 소중한 것이 있을 수도 있다는 것이다. 남녀 간의 사랑에서도 말이다. 자본주의적 소비 풍조를 보여주는 듯한 다채로운 원색 감의 옷과 영화적 소재들. 그러나 자발적으로 걸보기에 화려한 곳보다는 조금은 초라해 보일 수 있는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존재 자체야말로 '자본주의적 질서'가 자리한 곳에서는 '기존의 지배질서에 대한 도전이고, 해체의 시도'에 가까운 것이 아니던가.

그리고 보란 듯이 세바스찬과 미아는 자신들의 꿈을 이룬다. 세바스찬은 자신만의 재즈바를 열었고, 미아는 배우로 뽑히기 위해 기존의 오디션을 보러 다니던 방식이 아니라, 1인 연극을 하다가 눈에 띄어 배우로 활동할 기회를 잡는다. 세바스찬과 미아는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주는가. 남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야만 성공한다는 관념, 남에게 평가받고 선택받아야만 어떤 특정한 일을 할 수 있다는 관념 자체를 깨고도,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마치 과거 비틀즈가 그랬던 것처럼. 자신들만의 음악생활을 하기 위해서라면 공연할 수 있는 곳 어디든 작은 소공연장들을 누비며 활동하며 실력을 다졌던 것처럼 말이다. 주체적으로 자신만의 길을 모색했을 때, 성공한다는 절대적인 보장은 없을 것이다. 다만 그 앞에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저마다의 선택할 수 있음이다. '배우가 되기 위해서는 오디션을 봐야만 해, 정통재즈에 관심을 갖지 않는 시대에는 대중적 재즈를 연주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어.' 와 같은 지배적인 사회통념에 간혀있는 사람에게, 다른 삶의 방식, 다른 길의 모색을 추구할 수 있다는 사실의 인지는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질 수 있다.

마지막으로, 감독이 독재하지 않는 결말이다. 영화 <라라랜드>는 자신만의 꿈을 좇는(혹은 예술가의 삶을 꿈꾸는) 사람이라면, 마주해야 할 '직업이나 예술이나', '사랑이나 꿈이나'라는 질문 앞에서, 하나의 선명한 답을 제시하지 않는다. 감독이 영화에 대한 해석을 독재하기보다, 관객들 스스로가 고민하고 스스로 답을 선택할 수 있도록 깊은 질문을 남긴다.

'자신의 바람과는 다른 '대중적인 예술'의 길을 걸을 것인가, 아니면 자신이 하고 싶은 '자신만의 예술'의 길을 걸을 것인가. 사랑하는 이의 꿈을 응원하며 그녀를 머리 떠나보낼 것인가, 자신의 꿈을 잠시 미루더라도 사랑하는 사람과 끝까지 함께 하려고 노력해야 하는가.' 그리고 그에 대한 절대적인 답이 없음을, 오직 개인적인 선택과 책임만이 있음을 영화로 그려냈다. 누구의 선택이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 오직 개인 자신만이 선택하고 그 결과에 책임을 질 수 있을 뿐인 것이다. 이에 감독은 영화의 결말과 의미를 독재하지 않고, 관객 스스로가 판단하도록 최대한 영화를 열어두고 표현했다.

위와 같은 세 가지 후기구조주의 및 해체주의적 특징을 가지고, 영화 <라라랜드>를 살펴보았다. 기표로써 기의를 온전히 드러내지 못하는 언어의 왜소함으로부터 벗어나, 언어 외의 다른 시각적, 청각적 표현들을 통해 관객의 '시적상상력'을 자극하는 방식으로 사람의 다양한 감정을 표현하고 이야기 했다는 점. 자본주의 사회 속에서 '중심적 관념으로 자리 잡은 획일적인 직업관이나 결혼관'에 대한 도전을 요구하면서, 수동적으로 순응하는 모습보다는 주체적으

로 선택하는 모습의 아름다움을 보여주고, 탈중심을 통한 저마다의 다른 삶의 방식, 다원화된 삶의 길이 있을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는 점. 또한 헤아릴 수 없는 삶 앞에서, 절대적인 정답이란 있을 수 없듯이, 감독이 자신만의 해석으로써 영화를 독재하지 않고 관객들에게 깊은 생 질문을 남기며 열어주었다는 점에서, 영화 <라라랜드>가 ‘후기구조주의 및 해체주의적 관점’에서 가지는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